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3  
vol. 51

Wint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3년 겨울호

## 시론

- 3 중대 약대라는 올라리는 참 든든한 배경 관심과 참여로 자긍심 갖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임기민(36회) 동기회장

## 동문회장인사말

- 5 4년의 기다림 뒤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처럼 권석형(23회) 동문회장

## 문학산책

- 25 여행을 묻다 이종학(18회)

## 특별기고

- 28 청호 손동헌 교수님 전기집 편찬을 기념하며 손의동(22회) 명예교수/편찬위원장

## 약국도움이야기

- 31 구강건강증진 편집위원회

## 동문회소식

- 6 화보
- 9 팬데믹의 터널을 뚫고 골프축제 한마당 202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대회 권성렬(39회) 동문골프대회 준비위원장
- 12 '동문 만남의 날', 코로나 게 섰거라! 제50회 모교의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 행사 최병원(30회) 사무총장

## 학교소식

- 36 · 故 손동헌 명예교수 전기집 '청호 손동헌 출판 기념회 열려
- 약학대학 서동철(23회) 명예교수, FAPA 부회장 선출
- 약학대학 황완균(26회) 교수, 한국생약학회 '제6회 가산광동학술대상' 수상
- 약학대학 최형균 교수, 한국생약학회 환당전연약물학술상 수상
- 광명병원 '진정주 인공신장센터' 현판 제막식 거행
- 약학대학 이민원(25회) 교수, 30년 근속상 수상
- 약학대학 정선영 교수, 2022학년도 교육상 수상

## 동기회소식

- 16 집착과 애증에서 자유로운 나이가 되어 이은주(16회) 총무
- 19 작전명 '목포행 KTX를 잡아타라!' 김학철(26회) 동기회장
- 22 같이 놀자 친구야! 이정석(36회) 동기회장

## 39 장학기금

## 40 회비내역

## 42 만평

## 43 편집후기



## 중대 약대라는 울타리는 참 든든한 배경

- 관심과 참여로 자긍심 갖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안녕하세요? 새해 벽두 선후배님들께 36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달력을 벽에 걸면서 며칠 전 동문회보에 올릴 글을 부탁받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 저희 동기들이 입학한 지도 35년이 지난 셈입니다.

중앙대 약대에 입학한 건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루이스가든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부분 약국을 시작했고, 자주 보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가끔 소식만 듣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도 작년에 졸업 30주년 행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어느덧 흰 머리카락이 어울리는 나이가 되었고, 다시 만난 동기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모자랐지만 다음 40주년을 기약하며 헤어질 기억이 생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의 2기수 정도는 30주년 행사를 못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배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20주년, 30주년 행사를 꼭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사를 통해 동기애를 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우리가 모교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자부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 기 민(36회)  
동기회장

동기만의 행사 말고도 전체 중대 동문을 만날 수 있는 동문 체육대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선후배님들과 족구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숨어있던 열정을 발산하는 자리지요. 불타는 승부욕으로 다양한 상품을 싸쓸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행사로는 매년 열리던 동문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동문 모임이나 동문회비 납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대 약대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모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중대 약대 동문회의 위상도 더욱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재삼재사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약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통해서든 교수가 되어서든 약국을 운영하든 공직을 통해서든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더 나아가 약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대학 재학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나와보니 중대 동문이란 자부심이 나날이 커 집니다. 살아오면서 '중대 출신이다' 하면 뭐든 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라성같은 선배님들은 물론이고 뛰어난 후배분들까지 역시 중앙대 동문이라면 약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약사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든든한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선후배분들의 도움과 정을 받았습니다. 중대 약대라는 울타리는 참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대 동문이자 약대 동문입니다.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동문 선후배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4년의 기다림 뒤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 처럼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대 동문회장 권석형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후 4년동안 자라지 않다가, 4년이 지난 후에는 매일 30cm 이상 성장하여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 15m 높이의 뾰족한 숲을 일구는 '모소 대나무(Moso Bamboo)' 라는 희귀종입니다. 그러나 4년간 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4년간 단단한 기초를 다지며 보이지 않는 땅 아래로 기초를 다지며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정체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소 대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를 다지듯, 지난 한해 우리도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약사들의 지성공동체가 소통하는, 선후배간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했던 동문회 골프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문 화합의 희망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약한 동물로 치부되지만, 다른 모든 동물들이 힘들어하는 오르막길에서 더 빠르게, 더 오래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각계에서 힘을 보태주는 동문들의 응원과 성원, 선후배님들이 쌓아놓은 약학대학 동문들의 끈끈한 연합으로, 2023년 계묘년은 울창한 숲과 같이 밀도 있게 차오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공동체의 저력을 모으는 구심점으로, 세계 속에서 더 자랑스러운 동문 인재를 양성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여러분이 쌓아 오신 역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이 어둠을 떨쳐내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빛나고 뜨겁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 석 형(23회)  
동문회장



9월 20일\_ 2022년도 골프대회

9월 21일\_ 약학대학 실험반 반장 및 학생회 임원 모임

9월 23일\_ 2022년 중앙인의 날 자랑스런 중앙인 상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01

02

03







10월 20일\_ 2023년 모교의 날 체육대회  
“동문만남의 날”

10월 22일\_ 10회 동기회 모임

10월 23일\_ 청호 손동헌 명예교수 전기집 발간식



01

02

03



01

02

03

04



12월 9일\_ 중앙대 약대 제약동문 모임

12월 10일\_ 서울동문회 모임

12월 20일\_ 약학대학 교수 간담회

1월 14일\_ 2023년 신년교례회







202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대회

# 팬데믹의 터널을 뚫고 골프축제 한마당

권 성 렬(39회)  
 동문골프대회  
 준비위원장



세계적인 명문 동문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체육대회에서 골프를 독립시켜 탄생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대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년간 중단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 지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엔데믹의 조심스런 기대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부활한 동문 골프대회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은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면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 자리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를 이끌고 계신 권석형(23회) 회장님 이하 회장단이 분투노력하고 계신 동문회에 누가 되지 않는 좋은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첫 동문 골프대회 준비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회장님 이하 회장단 여러분의 환대에 마음이 편해지며 좋은 예감으로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골프는 용사처럼 플레이하고 신사처럼 행동하는 게임이다."라는 데이비드 로버트 포건의 명언처럼 '준비할 때는 용사의 마음으로 과감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행사 당일에는 신사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준비한 것을 펼쳐보자'라는 다짐으로 행사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준비 초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골프장 선정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골프장이 갑의 위치인 상황에서 어느 골프장에서도 대규모 대회 행사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터라 더욱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동문회 최병원(30회) 사무총장님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실크벨리cc와 인연이 닿아 가장 어려운 고비인 골프장 선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회 규모를 정하는 단계였는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참가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35팀 내외의 대규모 샷건 방식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5팀 내외의 소규모 순차적 티오프 방식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다 보니 골프대회 날짜를 평일로 할 것인가 주말로 할 것인가가 또 다른 걸림돌이었습니다. 주말로 하면 행사 참여 의사를 밝히는 동문회원들이 많아져서 팀수가 초과될까 우려가 되었고, 주중으로 하면 약국 경영을 하는 동문회원들의 특성상 참여 인원이 부족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중으로 행사 날짜를 정하고 참여 인원을 파악해서 팀수를 맞출 수 있는지 조사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다행히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에 진심인 동문회원들 참여 덕분에 예상했던 팀수를 맞출 수 있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측과 여러 번 소통하며 각종 비용과 방식, 시간, 기념촬영, 시타 준비 등의 사항을 사전조율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준비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이 참가자 초대와 조편성입니다. 우선 기수 대표님과 지역동문회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문 골프 모임인 중앙회, 서울청룡회, 소청룡회에 공지를 드리고 재차 연락을 드립니다. 회장님이 연락이 안 되면 총무님께 연락합니다. 다들 반겨 주십니다. 내친 김에 상품도 하나씩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연세를 생각하여 연락도 문자와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를 다 같이 합니다. 물론 공문도 보냅니다. 내·외빈 초대에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위상에 맞는 내·외빈께서 자리를 빛내 주셔야 행사가 더욱 성공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가자의 윤곽이 잡힌 이후에는 조편성에 돌입합니다. 우선 각 기수별, 분회별 경쟁 참가자들의 선수조 조편성을 먼저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즐거운 라운딩을 위해 참여하는 동기별 명랑조 조편성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내·외빈들을 위한 의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난이도는 참가자 각자의 사정에 의한 티오프 시간 요구사항, 앞뒤 팀 연속 편성 요구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정된 조편







202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동문골프대회 수상자

### 개인 시상내역

우승	김현태(20회)
메달리스트	이강옥(26회)
여자 1위	최미숙(28회)
준우승	최광식(16회)
준 메달리스트	장병곤(29회)
니어상	최광훈(22회)
장타상	남)김홍진(22회) 여)안정은(32회)
행운상	이선우(34회)
다버디상	박영달(27회)
다파상	허영(16회)
다보기상	손의동(22회)
으뜸상	황완균(26회)
분발상	김명철(39회)
대박상	김사경(34회) 백희숙(34회) 장원진(36회) 정재영(39회) 박소영(35회)
3위	정명진(18회)
베스트 드레서	박상규 총장

### 단체전

동기회	우승	26회 동기회
	2위	23회 동기회
	3위	31회 동기회
분회	우승	안양분회
	2위	용인분회
	3위	수원분회
최다참가 기수	1위	26회(12명)
	2위	27회(9명)
최다참가동기회	1위	34회 동기회
	2위	23회 동기회
	(공동)	26회 동기회
최다참가분회		용인분회



성이 수정되길 여러 번 반복하며 최종 조편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날씨가 늦여름이라 많이 더울 수도 있고 혹시 갑작스런 태풍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비가 행사를 그르칠까 걱정도 됩니다. 다행히 당일 아침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에 햇님이 방긋 웃어줍니다. 라운딩도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골프축제는 김창중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빈 동문회원 총 96명이 참가하여 실크밸리 골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행복 가득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경기 방식은 신페리오 방식(New Perio Method)입니다. 신페리오 방식은 서로 다른 기량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기준 홀을 정하여, 그 홀의 점수를 기준으로 핸디캡을 정하고 선수의 점수를 재평가하여 경기결과에 반영하는 핸디캡 시스템입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된 수상자들은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2/3 정도는 행운권이라도 당첨되게 헤드리코자 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들께서 많은 시상품을 제공해 주셔서 아주 풍성한 상품 대잔치가 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한약사회 최광훈(22회) 회장님, 경기도약사회 박영달(27회) 회장님, 약학정보원 김현태(20회) 원장님, 유정사(10회) 고문님, 장재인(17회) 고문님, 대한약사회 최두주(25회) 사무총장님, 저서를 제공해 주신 김창중(11회)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박상규 총장님, 신현국 총동문회장님, 황광우 학장님 외 명예교수님들, 현직교수님들 이외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신 제약사 및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자, 세계 명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좀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동문들의 축제의 장 이어야 할 체육대회는 2019년 10월 13일 제49회 체육행사 이후 무려 3년 3일 만인 2022년 10월 16일에야 막힌 혈맥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이날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동문 350여명이 '제50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을 감격적으로 개최해 반갑고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보내며, 동기별, 지역 약사회별 단합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권석형(23회) 동문회장은** 개회식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공식적인 모든 행사와 만남이 중단되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참여율이 저조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저력이라고 자부하고 싶다. 오랜만의 만남 가운데 회포도 풀고, 약국 등 업무 현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최광훈(22회, 자문위원) 대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 지 벌써 10개월 지났다. 취임 첫날부터 현안을 해결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시간이었지만, 곳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며 약업 발전과 약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중앙대 동문님들을 만났으며, 중앙인의 자부심을 지키고 높이는데 부족함 없는 회장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또한 모교 **황광우(35회) 학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회가 재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장학금은 우수 인재 모집과 모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본교는 정부 연구 기금을 확보하고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연구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신현국 총동문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기념 2022 중앙인의 날 행사에 약대 동문이 많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단과대



학 동문회 체육대회가 50주년을 맞이할 만큼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약학대학이 중앙대학교의 대표 단과대학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치하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1회 동기회장이며 개회선언을 해주신 홍흥만(1회) 선배님, 서국진(13회), 장재인(17회), 김현태(20회), 최광훈(22회) 고문, 김창종(11회), 조찬휘(15회), 손의동(22회) 자문위원, 김희식(28회) 여동문회장, 박영달(27회)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하여 황광우(35회) 학장 및 다수의 현직 교수와 허인회(4회), 염정록 명예교수 등이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셨다.

김준하(62회), 권소정(64회) 동문의 대표 선서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바둑, 제기차기, 발/팔 씨름, 생맥주 빨리 먹기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가급적이면 한 사람의 동문이라

1. 생맥주 빨리 마시기    2, 6. 팔씨름    3. 발씨름    4. 화살던지기    5. 윷놀이    7. 신발던지기    8. 줄다리기





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대항전과 청백전 게임을 진행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체육대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관심과 참여로 운동장의 열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했고, 정금순(20회) 동문, 손의동(22회) 교수와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마라토너인 박주돈(26회) 동문의 40바퀴 완주는 그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축제의 장에 빼놓을 수 없는 막걸리를 26회 동기가 제공해 최고의 인기 메뉴로 등장했으며, 식사 배식과 내빈 안내 등 언제나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김희식

여동문화장과 여동문회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동문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간고사로 바쁜 일정에도 참여한 재학생 후배들의 든든한 조력은 숨은 공신으로 부족함이 없이 올해도 묵묵히 굳은 일을 맡아 주었다.

각 경기당 배정을 합한 종합우승은 34회 동기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으로는 39회 동기가, 3위로는 38회 동기가 선정되어 두둑한 상금을 받았다. 최다 참가상은 28명이 참석한 34회 동기가 차지해 타 동기의 모범이 되었다.



### 종목별 수상내역

- 족구 1등 39회, 2등 34회, 3등 23회
- 생맥주빨리먹기 : 1등 교수팀, 2등 38회, 3등 34회
- 바둑 : 1등 황공용(11회), 2등 백운경(21회), 3등 김상래(39회)
- 윗놀이 : 1등 39회, 2등 36회
- 팔씨름 : 1등 34회, 2등 38회, 3등 36회
- 발씨름 : 1등 34회, 2등 38회, 3등 29회
- 제기차기 : 1등 36회, 2등 39회, 3등 푸른구름회

이 은 주(16회)  
총무



## 집착과 애증에서 자유로운 나이가 되어

16회 동기회 졸업 50주년을 맞아



2022년 11월 하순!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첫 문턱이 교차되고 또 한 해가 안녕을 고하려고 서성대는 그런 시간이다. 스산한 바람이 스며드는 가슴 한구석과 다르게 올해 11월은 축복받은 연일 따사로운 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중앙대 약대 16회(68학번) 졸업 50주년 모임이 COVID-19 영향으로 대면도 못하고 지나가나 했더니 우리들의 기세가 힘찻는지 운 좋게 3년 만에 고개 숙인 코로나의 한껏 약화된 위력에 힘입어 2022년 11월 26일 드디어 그리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나 소풍 하루 전의 묘한 설렘과 비슷하게 야릇한 긴장감이 물려온 다.수도권 친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릉에서, 충청도에서 참석하신 친구들도 있어 정말 고맙고 이번 모임이 더욱 알차고 의미가 있는 만추의 초저녁 푸근한 모임이 되었다.

우선 본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나는 약대 졸업 후 20년은 개국약사로 성실하게 일했고 그 후 30년은 다른 분야 일을 제2의 천직으로 삼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직 은퇴를 모르는 현역이다.

부산시 외곽의 동래온천에서 태어난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강권으로 집에서 가까운 동래여중을 가야했지만, 선생님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아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져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집안의 극력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유학을 감행하여 숙명여고에 입학했는데, 몸에 밴 사투리와 서울토박이 학생들에 둘러 쌓여 힘들과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삶의 무게에 짓눌리던 시절, 지친 몸을 안고 방학만 되면 부산 집으로 출달을



을 쳤지만 항상 마음속이 헛헛한 시절이었다. 원래 나의 꿈은 '아나운서'였지만 서울 생활 일 년 만에 사투리의 억양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집안 어른들이 원하는 약대를 가게 되었다. 무슨 이유인지 여자대학은 싫다고 했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대 약대로 진로를 바꾸었다.

대학 일 년은 교양학부로 공부를 열심히 할 명분도 상상했던 멋진 이상도 야망도 없이 수많은 학생 무리 속에 그냥 지나갔다. 2학년이 되어 약학과 학생들만 수업을 받았는데 이 또한 꿈꾸던 학창생활은 아니었다. 청강생을 많이 받아 교실 안은 인산인해로 자리다툼을 해야 했고 캠퍼스 잔디밭에 뒹굴며 이상이 같은 친구들과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도 하고 낭만을 즐기고 싶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사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처음 겪게 되면서 내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지만 의식주가 큰 문제로 남아 당시 유행하던 입주 가정교사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생활 같은 약학대학 강의가 끝나면 부리나케 흑석동에서 동교동으로 가서 그 집 아이들 두 명을 가르치고 나면 진이 빠졌지만 내 공부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몸과 마음이 에너지 고갈로 너무 힘들어 나를 지탱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과감히 일 년 휴학 후 복학을 해서 입학 동기들과는 졸업 연도가 한해 늦어졌지만 휴식의 일 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고 삶의 여유도 가져다준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심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아름다운 시간들에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미술관도 다니고 책도 많이 읽었다.

다행히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암울했던 시기를 기억하며 삼년 전 모교에 오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라고 부탁드렸다. 내가 모교의 장학금으로 졸업했으니 당연히 값야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수혜를 받은 학생이 또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서 장학제도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는 바람을 간절히 담아서 말이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개국약사로서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973년 개국 당시 의약분업 이전의 장시간 중노동이 무엇보다 힘들었고, 일부 몰지각한 대형약국의 '난매'라는 고질병에다 부작용에 눈감은 파렴치한 몇몇 약사들의 무분별한 약물 투여에 넉더리를 낸 세월이 너무 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준 약국을 어느 시점에 미련 없이 정리했다.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68 동기들도 모두 성실한 편이라 지금까지도 묵묵히 약국에서 천직인 듯 사명을 다하는 친구들도 많고, 은퇴 후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졸업 20주년 큰 행사를 필두로 20, 30, 40주년 행사를 했고, 코로나 이전엔 매년 68 동기회의 의미를 살려 6월 8일 전후로 관광버스를 전세 내어 설악산으로 괴산으로 강화도로 유명 관광지를 돌며 그 지방 친구들과 즐겁게 만났고 연말엔 송년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시간을 내고 열심히 노력해 준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초대회장이었던 우상규를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의 숨은 노고가 컸고 특히 최광식과 조기현, 송명만 등 모두 동기생들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보석 같은 친구들이 있어 오늘까지 모임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떤 모임이든 자기희생적인 몇몇 사람이 없으면 그 모임은 생명을 잃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니까, 혼신을 바친 최광식 동기와 조기현 동기에게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백번 천번 표현해도 부족할 것만 같다.

졸업 50주년 긴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번 굴러감에 따라 유명을 달리하신 교수님이 너무나 많고 생존하신 분이 몇 분 안되어 이번 모임은 친구들끼리만 모이고 약대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40주년을 지나고 그사이 십 년 사이에 김일혁 교수님을 위시하여 송동헌, 임철부, 신화우 교수님 등 적지 않은 교수님들이 운명을 달리하셨다. 교수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로서는 보답도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다.

유기제약을 가르치시던 고윤식 교수님은 티눈으로 고생하던 나를 당신이 운영하시던 약국으로 데려가셔서 어떻게든 처치를 해주시려고 동분서주 하시던 자상한 모습이 눈에 선하고, 신화우 교수님은 깡마른 체격에 날카로움이 부각되어 학점도 잘 안 주신다고 수근대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안경 너머 인자함과 자상함, 유머 감각까지 갖춘 잊지 못할 분이다. 교수님의 고학연에 내가 선생님을 위해 자각시를 써서 낭독도 하였고, 돌아가셨을 때 영안실을 찾아 사모님과 자녀분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누었다.

스승님들의 사랑만 듬뿍 받고 보답을 못해 드려 마음 한구석이 지금도 돌덩이를 매단 듯이 무겁고 가슴이 에리는 심정이다. 이미 피안의 강을 건너가셨으니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영위하시길 두 손 모아 빌고 싶다.

우리 친구들도 벌써 우리와 작별하고 밤하늘의 별이 된 친구들이 꽤 많고, 나의 soul mate였던 김옥희와 이영순도 이런 저런 사유로 나를 두고 먼저 떠났으니 아득한 마음 공허함을 감출 길이 없다.

나이가 들어 이제 칠십 중반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석양의 낙조가 아름답다고 봄꽃보다 가을의 단풍이 훨씬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역시 태양이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에너지가 충만하고 희

망이 넘실대지만 석양이나 단풍은 쓸쓸함과 외로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살 만큼 살았지만 딱히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허전하지만 노년이 되니 여유로움이 좀 생겨난다.

여유로움을 생각하면 노년에 떠올리는 두 사람이 있다. 대하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병원에도 안가고 약도 죽어라 안 먹다가 '인명재천'의 순리를 깨우치는 순간 약을 먹기 시작했단다. 늙어서 이리 편안하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흥분하다고 말하며 내세에는 꽃으로 태어날까 나비로 태어날까 하고 고민하셨다는데, '늙어서 편안하다'란 그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박완서 작가 역시 자기 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때가 가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다가 정작 나무들이 벌거벗은 가지를 모두 드러내는 계절에 돌아가셨지만, 나이 들어 혈령한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어 좋다고 하였고, 화창한 봄날을 같이한 손자에게 이 기억이 값야 할 은공이 아니라 단지 아름다운 정서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에세이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집착과 애증에서 자유로운 나이로 접어들었다. 재물도 명예도 애착도 부질없는 허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행복했던 일만 추억하며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욕심 없이 살고 싶다.

그날 3년 만의 모임에서 졸업 50주년이 금방 지났으니 졸업 백 주년까지 건강하게 살아 자주 만나자고 다짐했다. 우리 68 동기들은 그 토요일 밤을 가슴속 깊이 기억할 것이다.

68이여 영원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라. 몸도 마음도 모두!!!



김 학 철(26회)  
동기회장



## 작전명 '목포행 KTX를 잡아타라!'

### 26회 졸업 40주년 기념 여행기



용산역은 옛날 그 용산역이 이미 아니다. 눈이 휘둥그레진다.

작전명은 '목포행 KTX를 잡아타라!' 아무도 모르게 올라타서 서로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폭 고개를 숙이고 목포역으로 가라!

'기차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암구호도 몇 번 지령을 통해 하달되었던 10.29(토)작전.

이름하야 강진 해태식당 저녁 만찬이 우리들의 첫 대면이 될 것이다.

용산역에서, 광명역에서, 공주역에서, 대전역에서 적들의 함정을 피해 열차를 잡아타야만 한다. 적들은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있다. 우선 교묘하게 위장 전입한 토요일 오후의 교통이 문제이므로 동지들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걸가지에 눈길도 주지 말라. 한총무님의 주도면밀한 계획대로 민첩해야만 했다. 적진지 위치는 이미 요원들에게 대략적으로 알려졌고, 강진 모처에서 폭탄을 투척하게 되어있지만 어느 요원이 그 임무를 맡을지는 아무도 모른 채. 단 1분도 늦어서는 안된다. 적진지를 폭침시키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목포역으로 잠입하여 상경하도록. 이것이 26회 졸업 40주년 기념 여행의 처음과 끝이다. 이상!

학~ 꿈이구나. 근데 꿈이 아니다. 서둘러야만 했다. 용산역이 서울이 아니더냐. 용산역이 서울이라는 말은 경강선 KTX를 일단 잡아타고 서울역에서 환승하여 전철로 용산역을 향하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바쁘다. 다른 요원들도 바쁘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적군이 눈치채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숨가쁜 일이었으랴. 그것도 약대 졸업 후 40년 동안. 세월을 유장한 강물처럼 흘러와 살아낸 동기들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남도땅 강진 그 언저리에서 그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잔을 부딪쳐 서로에게 안긴 수고를 토닥일 것이다. 빛나는 별이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 서로 위로가 되고 가슴 푸근하지 않으랴.

요원들이 도착한 곳은 1차 집결지 목포역.

늦가을이 어느새 짧은 해를 거두어 어둠이 깔렸다. 요원들은 미리 준비된 특수차량에 올라타고 강진으로 향한다. 실내등을 켜야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만 잠복주행을 위해 실내등 대신 한총무님의 환영 멘트가 울려 퍼진다.

강진 해태식당으로 진격하여 만찬을 일단 즐기고 작전 수행에 돌입할 것이다. 남도에서 출발한 여동기 두 명도 합류했다. 완전체를 이룬 요원들이 식당 접수 후 만찬을 즐긴다. 모두들 환하다. 오랜만에 만난 요원들이 건강을 서로 기원하며 잔을 채운다. 얼굴은 모두 졸업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다.

저녁 만찬 후 어둠을 뚫고 도착한 강진군 초당림, B약품의 연수원에서 1박의 여정을 푼다. 몇몇은 오랜만에 흥겨워 춤

을 추고, 몇몇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몇몇은 서로 못다한 그간의 얘기로 밤을 보낸다. 다음날 숙소 주위에 털머위꽃이 노랗게 핀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다음날 아침 강진만 앞바다로 향한다. 영랑생가와 다산초당과 백련사는 강진의 유명지이지만 우리는 함께 걷는 바닷길을 선택하기로 한다.

강진만! 강진만 앞바다에 있는 가우도의 아침은 눈부시게 그지없다. 남도에서 온 여동기가 너무 좋다~ 너무좋다를 연해서 환호성을 지른다. 함께 걸으며 두런두런 아침을 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그 언젠가 될런가. 또다시 함께 모여 아침을 걷게 될 가까운 날들은.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소망. 오직 지금 이대리가 좋은 요원들의 모습이 아침햇살에 더없이 푸르다.

오전 한나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바쁜 여정에 일정을 변경한다. 해남까지 가서 대흥사도 들르고 두륜산케이블카를 타려던 비밀 계획을 비밀리에 변경한다. 목포 해상케이블카로 변경된 작전은 특수차량에 올라 발표된다.

40년 전 몸무게의 2배 가량이 된 요원들을 감당하기에는 전 세 버스만큼 좋은 특수차량이 어디 있겠는가. 강진만을 빠져





나온 특수차량은 적들을 요리조리 피해 목포로 향한다.  
시간이 곧 적이기에 재빨리 움직여야만 한다.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북항스테이션에 도착한다. 목포역에서 가깝다. 목포역은 곧 되짚어 가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집결지인지라 가까운 곳에서의 움직임이 요원들에게 필요하다.

목포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고 삼학도가 발 아래 있다. 고하도에 내려 걷고 싶지만 적군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은가. 요원들은 첫째도, 둘째도 임무 완수가 사명이다. 특수차량을 주차장에서 놓치면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만다. 고하도 스테이션에 내리자마자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도로 잡아탄다. 적군도 놀랐을 게 분명하다. 얼마나 용의주도한 행동이냐. 유달산 노적봉도 놀라는 듯 우리를 내려다본다. 멀리 바닷길이 펼쳐져 있다. 목포는 항구다.

드디어 마지막 임무가 주어진다. 한두루빛님(두루두루 큰 빛을 비추는 한총무님의 또다른 별칭)의 발이 넓긴 넓다. 적군을 뚫고 모처에 위장망을 설치해 놓았단다. 이름하야~ 최고로~ 맛있는 거~몽땅 내 오이소 ~참호다. 참호안은 고요하다. 널찍하지만 아직 적군에게 들키진 않았다. 잔 들고 외친다.

중약 78동기회를 위하여~위하여~  
위. 하. 여.  
하~ 이 뭐꼬~ 간만에 만나니 위. 하. 여. 스타카토 좀 못 맞추나~ 자 ~ 다시!  
목포 바다가 요원들의 비밀자켓 안으로 팔팔 쏟아진다. 푸르다. 맑다. 살아있다.

힘이 넘친다.  
중약 78동기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위. 하. 여.

뚝 부러진다. 스타카토가. 역시 우리 26회 요원들은 다르다. 목포행 KTX 열차로 잠입한 요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모른 척하며 요원들과 수인사를 나눈다. 모두들 건강합시다!

마지막으로 작전 성공에 지대한 기여를 한 전체 요원들, 특히 26회 동기회 박주돈 회장님, 김유선 재무님, 한갑현 총무님, 동문회 박실장님, 그리고 강진 B약품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정 석(36회)  
동기회장



## 같이 놀자 친구야!

36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모임을 마치고



“아주 특별한 동기 한 명을 소개합니다.

이 동기는 사회로 던져진 삼십 년 동안 비록 아주 밝은 빛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에 담기진 못했지만 그는 맑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포근하게 담아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화려하고 큰 꽃망울로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시들어 떨어진 꽃잎처럼 이리 밟히고 저리 치이는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또 때가 되면 떠오르는 햇살과 함께

자신만의 향기를 간직한 작은 꽃망울을 어김없이 틔워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도 큰 파도 앞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어진 하루만큼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 없이 엄습하는 불안감에 두손들고 포기하고 싶은 나날들도 많았지만

또 다시 자신을 다잡고 보이지 않는 내일의 희망을 보는 용기로 살아왔습니다.

이 동기는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 하나 하나입니다.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이제는 주름진 얼굴에

이십 대 때의 모습을 보석처럼 감추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





‘반갑다 친구야’ 라는 주제로 하나되었던 졸업 20주년 기념식이 끝난 지도 벌써 십년, 이번엔 ‘같이 놀자 친구야’ 라는 주제로 36회 동기회는 2022년 10월 30일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중 진행을 맡은 류동명 동기의 가슴 울리는 소개사입니다

30년의 시간만큼 이제는 주름진 얼굴이지만 마음만은 보석같이 빛나는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20여명의 준비위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동기들에게 멋진 하루를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찾아 나서고 행사 진행의 아이디어를 내고 기념식 물품들을 준비하고...

요새말로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자기 맡은 일은 알아서 해주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행사 준비는 예상외로 수월했습니다.

더욱이 발전기금 500만원과 장학금 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톡방에 글을 올렸을 때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념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후원해준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과연 30주년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동기들이 모일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졌지만 오랜만에 마주할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저 멀리 미국을 시작으로 부산 구미 등 전국 각지에서 53명의 동기들이 설레는 마음을 간직한 채 기념모임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권석형 동문회장님의 축사, 기부금 전달식, 기념촬영에 이어 동기들의 살아온 이야기, 레크레이션, 10년뒤를 기약하는 타임캡슐 봉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속에서 환한 웃음으로 답해 주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추억이 쌓이고 있음을 느꼈고, 그 뜨거운 열기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퇴근해야 되는 행사업체에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볼 조제용 타이레놀이 경품으로 나왔다는 게 한편으론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왜 이리 짧게만 느껴질까요?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은데 시간은 기다려 주질 않네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합창하면서 40주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기념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단톡방에 지난 추억들을 떠올리며 잊혀진 동기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인사 한 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며

최병호(36회)



추억이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에, 마음 한 켠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쌓일 것입니다

그 추억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때론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 여행기를 묻다



## 통학 열차 맨 뒷칸 승하차 계단 바닥에서 본 풍경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고등학교 6년을 기차로 통학한 덕분이 아닐까 싶다. 요즈음 가끔 타는 기차 여행이라면 대부분 차창을 통해 펼쳐지는 풍경의 곁을 볼 것이다.

그러나 시속 50km 정도의 60년대 경북선 통학 열차의 맨 뒷칸 승하차 계단 바닥에 주저앉아 철길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속살 드러난 하늘과 땅, 그리고 내 자유가 그려내는 풍경과 무한확장 가능한 공간은 이미 같을 수 없다.

확연히 다르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보는 둥근 하늘과 탑승객이 보는 반쪽 하늘의 차이처럼. 나다니는 것을 좋아 하나 쓰기를 주저하는 것은, 여행 자체가 여유 있는 사람들의 호사스러운 유람 같은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여행이 보편화 된 요즘도 자기 자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만은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예방주사, 공항폐쇄 등 억지로 익숙해진 단어가 진짜 일상이 된 지 3여 년이 흘렀으니 한 번쯤 예외로 인정해 주리라 믿는다.

## 설렘이 짜증을 이겼다는 명백한 증거

서둘러 여행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천천히, 때론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무빙워크에 올랐다. 무심히 뒤돌아본 내 뒤를 조각난 검은 부스러기가 따라오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앞만 보고 가다 돌아보니, 이젠 아예 줄지어 따르고 있다. 널브러져 있는 저 부스러기, '내 여행 가방 고무바퀴 잔해' 임이 분명하다!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몇 년 전 오래된 내 구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지하철 역이었는데 지금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었다.

모처럼 속을 채워보는 여행 가방이 포만감에 자신의 무게를 방심했던 것일까,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내 안일한 생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



이 중 학(18회)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새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행기 탑승시간은 다가오는데 핸드폰만 뒤지고 있는 집사람, 한가하다 못해 생똥맛다. 조금은 야속하고 속상하다. 나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짜증이 스멀스멀 목울대를 치고 올라오려 하는 순간 울리는 목소리.

“우물쭈물하지 말고 출발 총 8번 출구에 가서 택시번호 0000, 택시기사에게 트렁크 받아 오세요”라고 한다.

“어...?”

급발진하는 내 뒤통수에 대고 “택시비 4~5천 원 나올 걸요.”

거짓말처럼 택시는 왔고,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다,

“트렁크 얼마예요?”

“4,200원 주세요”

“트렁크는요?”

“모릅니다, 난 그냥 배달만 합니다”

택시는 황하니 떠났고 발병 난 트렁크 문제는 딱 30분 만에 해결되었다. 덤으로 보스턴 백까지 달려왔다. 공항 근처 면세점에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했던 모양이다.

나는 지금, 어젯밤 늦게까지 망설이고 가늠하며 챙겨 온 모든 짐을 해부하고 다시 껴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짐은 새끼치듯 늘어났고 보스턴백을 다 채우고서야 멈췄다. 길 나서면 고생이라더니 나서기 전부터 고생은 시작되었다.

발병 난 트렁크는 쓰레기통 옆에 ‘열린 상태로 두고 가라’는 공항안내원의 말이 무지하게 곱게 느껴진다.

어수선한 과정이지만 무사히 공항 면세구역까지 진출하는데 성공,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이해했다. 설렘이 짜증을 이겼다는 명백한 증거다.

### 소심한 양값음

미리 출입을 확인해 뒀던 마티나 라운지를 찾아 나섰다. 먹기 위해서다.

지난번 여행 때 제법 괜찮았던 맛이 생각나 눈 부라리며 못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서둘러 동편 라운지를 찾아갔다. 웬걸, 코로나 때문인지 ‘잠시 영업 중단’을 선언해 놓고 아

무도 없다. 청소미화원으로부터 서편 라운지는 열었다는 정보를 입수, 18번 게이트에서 41번 게이트까지 한가지 목표로 3층, 4층을 오르내리며 찾아갔다.

자신 있게 스카이패스 카드를 내밀고 입장 여부를 당연한 듯, 여유 있게 타진 혁, 이번엔 제휴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란다.

“또...?”

라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난 할 말이 없다.

트렁크를 발로 툭툭 차보고 카드도 지갑에 잘 챙겨 넣었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특별함을 느껴보겠다 시도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다리는 힘이 빠지고 뱃속도 배고픔을 잊은 듯했다. 허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푸드코트로 내려와 일 인분을 시켜 둘이 먹었다.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와의 거리가 먼 나 나름의 소심한 양값음을 했다.

### 과거(수도원)보다 현재(에그타르트)에 더 열광

리스본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1755년 대지진 때에도 살아남았는데 그 수도원보다 더 유명해진 곳이 따로 있다. 에그타르트 원조 빵집, ‘파스텔 드 벨렘.’

오래전 수녀복을 뿔뿔하게 하는데 달걀 흰자를 분리해 사용하고, 남은 노른자를 우리네 풀빵 굽듯이 바삭하게 구운 것인데, 여행객들은 과거의 수도원보다 현재의 에그타르트에 더 열광했다. 덩달아 옆 카페도 성업 중. 매장 2층에 용케 자리를 차지하고 에그타르트와 커피 한 잔을 유명세 때문에 한 번 먹어 봤다.

테라스에 앉아있던 한 여행객이 뒤로 넘어져, ‘철제의자가 사람을 지고 있는 모양새, 물방개를 뒤집어 놓은 상태’가 되었다. 얼른 일어나려 했으나 뒷옷 레이스가 의자 사이에 끼어 일어나지 못한다. 안쪽에 음료수를 사러 갔던 지인들은 보지 못 했고 종업원의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아찔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이 사건은 여행 내내 회자 되었는데, 농담 반 진담 반, 가족에게만 허용되었다.

‘물방개처럼 뒤집혀져, 팔다리 버둥거리는 모습으로...’



## 들뜸이 만든 행복한 돌발현상

여행이 주는 생소한 환경에서의 어눌한 움직임과 실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데, 버스 발판은 높고 결과는 넘어지고, 걸핏하면 커피 쏟고 옷 갈아입어야 하고, 사람 없어 찾아보면 다른 버스 옆을 서성이고, 몰래 라면 끓이며 허둥대다 데이고, 2시간마다 서는 휴게소를 피해 시도 때도 없는 생리현상, 오죽했으면 화장실 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들뜸!’

들뜸은 보통이 아니거나 비정상적인 흥분상태로 되는 것인데 여행은 분명 기분 좋은 흥분상태로 만드는 긍정적 흥분상태다. 양자론에 따르면 원자나 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가 외부의 자극 때문에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된 현상인데, 여행은 외부 자극에 해당한다.

소풍이라는 말의 자극을 받아 설렘 감정이 북받쳐 일어나고, 덩달아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엔도르핀의 생성과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킨다. 여행은 평온했던 사람 마음을 들뜸의 상태로 만들고, 평범한 일상은 흥분상태로 변하여 이성적 판단과 행동이 헛갈린다. 일상에서는 안 하던 실수의 원인이다.

여행에서 실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들뜸이 만든 행복한 돌발현상이다.

##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의 연유

원래 여행이 즐거움이었을까?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불안한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떠남’, 쫓겨나든 세상을 등지든 믿음을 얻기 위해서든 생존을 위한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영어 travel은 travail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Travail은 막대기 셋을 중간지점을 엇갈리게 묶은 일종의 고문 기구인데, 고생, 고통, 고문의 의미가 있다. 속뜻으로 보면 한마디로 ‘고생’이란 말이다. 오늘날 여행의 뜻을 따져보면 확연히 다른 반대 개념이고 엉뚱한 어감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의 연유다.

## 당연해서 무심했던 소소한 것들의 재발견

여행은 여행 가방을 꾸리고 펴는 데서 시작하고, 의, 식, 주 불편함과 즐거움이 균형 잡힐 때 계속할 수 있으며, 돌아와 내 집이 오히려 어색할 때 드디어 여행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뱃사람은 뱃멀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멀미를 할 때 비로소 옳은 뱃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굳이 따로 마련한 여행복, 미술랭 별점 식당 먹거리, 그리고 화려한 호텔의 이국적 냄새, 내 몸과 입, 코는 소풍이 끝날 때까지 여행의 도리를 찾지 못한다.

공항에서 마주한 국적기가 이렇게 반가운 것은 반드시 애국심만은 아닐 것이다. 집으로 간다는 안도감과 은연중 존재하는 소속감, 평소처럼 들리는 한국어, 비빔밥과 스투어디스가 몰래 챙겨주는 기내용 고추장 하나. 당연해서 무심했던 소소한 것들의 재발견, 여행이 내게 준 소중한 의미가 아닐까?

## 요란하게 떠나고 텅 비어 되돌아올 지라도

여행은 이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큼은 거짓 감성을 만들 수 없다.

스탕달 신드롬, 고호가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를 보고 느낀 감정과 미국화가 마크 로스코의 직사각형 화면에 비친 ‘검정과 빨강’의 대비.

쓰러질 듯한 현기증,  
주눅든 듯한 격한 감정의 요동,  
그리고 질투와 분노의 숨막힘.

난 아직 이런 감정을 가져보지 못했다.

이 숨찬 희열을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기 위해

오늘도 길 떠남을 주저하지 않는다.

저렇게 요란하게 떠나고,

또 이렇게 텅 비어 되돌아올 지라도...

손 의 등(22회)  
명예교수/(전 대한약학회 회장 /  
전기집편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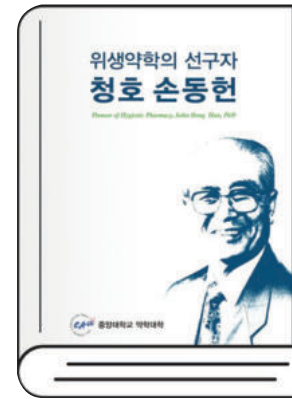
## 청호 손동헌 교수님 전기집 편찬을 기념하며

癸卯年(계묘년, 토끼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1953년에 모교 약대가 창립되어서 70주년이 되었기에 올해는 발자취를 다시금 뒤돌아 볼 시간이 되었다. 때마침 준비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까? 약 1개월 전(2022년 11월 24일) 1회 졸업생이자 위생약학의 선구자이신 청호 손동헌 전기집 편찬에 대한 기념식을 박상규 총장을 비롯하여 약대교수(학장 황광우)와 동문회(회장 권석형)에서 대거 참석하여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손동헌 교수(1930~2021년, 91세)께서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셨고 1950년 12월 남하하셔서 중대 약대에 1953년 입학한 창립멤버의 한 분으로서 중앙대 약대 역사의 산증인이시다. 창립이래 처음 시행하는 전기편찬사업이라 의미가 특별하다.

1회 졸업생에 대한 생애를 고스란히 기록에 담는 것은 선후배들에게 역사적인 귀감이 될 수 있으며 이 책의 일정 부분이 약대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편찬인은 손교수님과 형과 아우처럼 지내신 허인회 교수님과 분석학전공의 염정록 교수님, 그리고 호산회 수장격인 권희문 선배, 화갑문집 집필을 솔선수범한 권창호 박사, 관록의 제약 전문인인 정원태 박사, 수정과 수영 두 따님이 수고하였고, 그외에도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손교수님은 1930년 4월 함경남도 북청(물장수 본고장)에서 태어나시어 1949년 북청농업전문학교 수의과를 졸업하고 국립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6.25 동란을 겪는 와중에 부친과 함께 목숨을 건 남하를 결정하셨다. 재학시절에는 학생장을 맡았고, 1959년 미국 뉴저지주 워너램버트 연구소에 유학하였다. 1960년부터 36년간 교수로 봉직을 하시면서 많은 발자취를 남기셨다. 약대 교학과장, 약대학장, 약학연구소장, 중앙대학교 도서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봉사하셨다. 1994년에는 한국대기환경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시고 2004년에는 북청군민회 회장, 2015년부터는 재단법인 북청군장학회 이사장으로 봉사하셨다.

성품은 늘 웃으시는 소탈함과 너그러움을 가진 인자한 타입이셨다, 재직시절 국내 토양과 하천 영역에서 수은과 카드뮴농도를 발표하여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고, 미세먼지, 산성비에 대한 연구도 소개되었으며, 일간지 외에 TV 뉴스에도 방송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제19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수은 중독과 산성비 등 환경오염에 관한 업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으니 대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라 칭해 마땅하다. 필자도 학부 시절에 정성분석반에 들어가서 인연을 맺었고, 1997년에 모교인 중대 약대로 옮겨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다. 필자가 편찬위원장으로서 2021년 정년 후 교수님이 부탁하신 집필 약속을 지키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로 편찬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다행히 교수님이 남기신 메모와 일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도움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내용은 제1부에서는 생애에 대한 업적과 기고문 등을 발췌하여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제2부는 추모의 글, 즉 약대교수, 동문, 실험반, 호산회, 일락회, 백수회, 대기보전학회, 북청군민회로부터 원고를 받아 이를 완수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의 발전기금은 2005년과 2010년 각 500만원씩에 이어 학부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하셨다. 2021년 5월 15일 스승의날에는 학교를 위하여 1억원을 쾌척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102관 206호 강의실이 손동헌홀로 명명되어 헌정되었다. 또한 발전기금을 내시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단순한 사회 환원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도우는 동병상련에서 나오는 마음의 보답이었다”고 회고하며, 학교가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과 힘을 주었다고 강조하셨다. 필자는 제2의 손박(孫博)이 되겠다고 다짐했었기에 유지를 받들어 발전기금 릴레이(1억원)에도 동참하게 되었으며, 좋은 전통인 릴레이 바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모교 사랑은 각별하셨다.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웅비(雄飛)란 비석을, 60주년 기념으로는 용립중앙 비상약대(聳立中央 飛翔藥大)란 현판을 기증하셨다. 남은 일은 교수님의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야 하는 것이다. 무사히 편찬을 마치게 되었음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대학교와 동문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봉사하고 나눔의 자세 실천하심을 본받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십니까? 구강건조증<sup>dry mouth</sup>

편집위원회

타액의 역할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강건조 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와중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 단순히 생활 하는데 불편하다거나 환자의 건강상태의 일부를 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QOL)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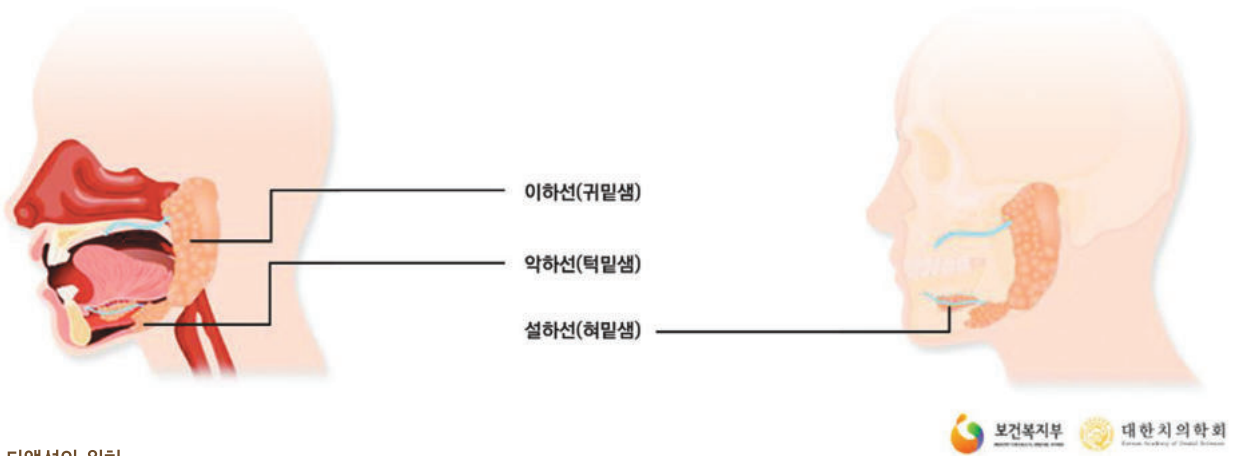
구강건조증(xerostomia; dry mouth)이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타액의 분비가 결핍됨으로써 입안이 마르는 것을 환자가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그 자체 질병이라기보다는 각종 병적 상태에 따른 증상의 일부로서 혹은 약물투여나 두경부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타액선의 기능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구강건조증은 가장 흔하게는 타액선으로부터 타액의 분비가 감소되거나 드물게는 타액의 분비가 완전히 중지됨으로써 타액의 구강방어 시스템이 파괴되어 나타나며, 이외에도 건조한 공기, 구강을 통한 호흡, 흡연 혹은 다른 인자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유병률이 65세 이상 인구의 30% 정도로 알려진 것처럼 노인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직접적인 나이와의 연관성보다는 노인들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그런 약물을 복용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되고 있다.



구강건조증 (출처: Wikipedia)



주요 타액선의 위치



**타액의 분비**

타액(침; saliva)은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및 뺨이나 입천장 등의 구강점막에 골고루 퍼져있는 다른 작은 점액선에서 분비되는 다소 점성이 있으며 투명하고 물 같은 분비물이다(pH 6~7.4). 타액은 주로 물로 되어 있으나 효소와 다른 단백질, 작은 유기분자, 전해질 및 타액에서 유래되지 않은 성분들(치은열구액, 음식물 찌꺼기, 세포성분, 세균 및 곰팡이 따위)을 함유하고 있다. 참고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조절에 의해 하루에 1000~1500mL 정도의 타액이 분비되는데, 음식을 섭취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쉬거나 잠자고 있을 때도 적은 양이 계속 분비된다.

**생각보다 큰 타액의 역할과 기능**

타액은 말을 하거나 맛을 느끼는데, 그리고 음식물이 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화학적, 기계적 혹은 감염성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제1의 방어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타액의 많은 방어적 기능에는 윤활작용(구강점막과 혀, 음식물, 치아와의 마찰 감소로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도움을 주며, 말하기를 편하게 한다), 항균작용(면역글로부린 및 비면역글로부린성 인자를 통한 항균작용), 미네랄 공급(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성분인 칼슘과 인을 공급하여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 음식물 찌꺼기 제거 등 기계적 세척작용, 완충작용(중탄산이온, 인산이온 등에 의해 타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 등이 포함되며, 또한 점막보호작용(점막의 건조를 막고 점막의 통합성 유지)을 나타내기도 한다.

타액의 일반적인 기능

· 말하기	· 맛을 느낌	· 음식물 소화를 도와줌	· 소화작용
· 윤활작용	· 미네랄 공급	· 세척작용	· 완충작용
· 점막보호작용	· 항균작용		



### 구강건조증의 원인

구강건조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만성적인 경우도 있다. 일시적인 원인으로는 주로 약물치료 중의 부작용으로 흔히 나타나는데, 약물투여로 타액을 분비하는 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구강건조증이 온다. 또한 설사나 구토, 과도한 발한, 고열 등으로 인해 몸 안의 수분이 빠져 나감으로써 타액의 분비가 줄어든다.

만성적인 원인으로 주로 선천적인 타액선의 이상, 영양결핍의 원인으로 생기는 만성적인 타액선염, 당뇨병, 비타민 결핍, 철 결핍(빈혈), 노화에 따른 타액선의 위축으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올 수 있다. 특징적으로 40대 여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쇼그렌증후군은 구강의 건조, 눈의 건조, 관절염의 3개 증후군이 같이 나타나며 특히 구강 내 조직의 통증과 타는 듯한 느낌의 작열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구강 영역의 악성종양으로 인해 장기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타액선의 세포들이 손상을 받아 타액의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 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해 타액선에 직접적인 손상을 받은 경우,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 약물

구강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약 500여종의 약물이 타액 분비를 감소시키거나 타액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알레르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와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우울증약, 불면증약), 항고혈압제 등이 대표적이다.

#### ▶ 방사선 치료

두경부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경우 타액선을 직접 파괴하고 침샘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구강건조증을 일으킨다.

#### ▶ 쇼그렌증후군 (Sjogren's syndrome)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타액선, 누선 등에 림프구가 침입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분비장해를 유발한다. 전형적으로 중년 여성에게 가장 흔하며, 남녀 유병률의 비율이 1:9로 여성에게서 훨씬 많이 발생한다.

### 다양한 증상

구강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입안이 마르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며, 입술이 갈라지거나 아프고(구각미란증, 구각염), 입냄새(구취), 말하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목구멍이 아프거나 쉼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비강이 건조해지기도 한다.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타액이 부족하여 상복부 증상(소화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혀는 자주 '화끈거린다' 혹은 '따끔거린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혀의 통증), 미각의 변화 역시 일반적이다. 평상시 축축하게 적어있고 윤기를 띠는 구강점막이 탈수되어 건조하고 갈라지게 된다. 조직



**DRY MOUTH**



혀의 통증



미각의 변화



씹거나 삼키기 어려움



입안이 마른 느낌, 불쾌함



입냄새



충치, 치주질환



상복부 증상



말하기 어려움



구강 감염증

구강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

은 갈라지거나 출혈이 되며, 특히 혀의 위쪽이 갈라지거나 작은 구획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틀니 혹은 보철을 한 환자들은 평상시처럼 착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며, 틀니에 의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구강의 pH를 감소시키고, 치태와 충치(치아우식증)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구강건조증은 또한 구강내 정상세균총을 변화시키는데, 특히 Streptococcus mutans 같은 충치와 관련이 있는 미생물을 증가시킨다. 칸디다증 역시 흔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혀 및 구개(입천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심해지면 대인 기피까지 초래**

평소 섭취하던 음식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영양학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미각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그런 경향이 강하다. 갈증 및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분섭취에 따른 빈번한 야간의 화장실 출입 등등이 관여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구강건조증은 말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환자들은 혀가 경구개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맛을 짹짹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보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일부 환자들은 심지어 대인공포증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물론 전화 대담이나 다른 형태의 사교적인 대화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모든 인자들이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떨어트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의 하나는 환자들이 약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약의 복용을 기피하게 되는 2차적인 순응성의 저하이다. 구강건조증은 또한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설하정의 용해를 지연시킬 수 있다.

### 구강건조증의 치료

구강건조증의 치료는 가능하다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타액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강건조증의 치료는 통상 인공타액(타액대체제)이나 pilocarpine과 같은 타액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이 사용된다. 밤에 잘 때 가습기를 사용하고, 입술에 보습제나 바세린을 자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 음식,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자주 먹고 충치나 치은염의 예방을 위해 구강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타액대체제 - 인공타액

연조직의 불편함을 경감시켜 주는 인공타액 제제는 천연타액을 화학적/물리적으로 모방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대체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타액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 점도를 증가시키는 성분 : carboxymethylcellulose, hydroxyethylcellulose

- 미네랄 : 칼슘과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불소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인공타액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하지만 작용지속시간이 길지는 않다. 필요하다면 삽입하기 전에 틀이나 보철물에 적용할 수도 있다.

#### ▶ 타액분비 촉진제 - pilocarpine

비교적 저용량의 pilocarpine(5~10mg 1일 3회)은 타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약제로서, 남아있는 타액선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현저한 무스카린 M3 작용을 가진 콜린성 부교감신경 흥분제이다.

Pilocarpine의 임상적 적응증은 쇼그렌증후군 혹은 두부 및 경부암의 방사선요법에 의해 일어나는 타액선의 기능저하로 인한 구강건조증의 치료이다. 타액분비 효과의 지속시간은 2~3시간이며, 증상의 개선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6~12주간 유지요법으로 투여해야 한다.

Pilocarpine은 시력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운전을 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 ▶ Cavimelin

Cavimelin은 누선 및 타액선 상피에 존재하는 무스카린 M3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이 높은 콜린 효능약으로, 타액선 및 한선을 포함하는 외분비선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임상적으로 쇼그렌증후군 환자의 구강건조증 증상의 치료에 적용된다.





##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아’ 故 손동헌 명예교수 전기집 ‘청호 손동헌’ 출판 기념회 열려



故 손동헌 약학대학 명예교수의 전기집 ‘청호 손동헌’ 출판 기념회가 11월 24일 서울캠퍼스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14호(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청호(靑湖)는 손 명예교수의 호다.

이날 행사에는 손동헌 명예교수의 유족인 김윤희 여사와 두 딸이 참석했다. 박상규 총장과 주재범 연구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그리고 많은 약대 동문이 지난해 숙환으로 별세하신 손 명예교수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

고인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제자인 손의동 약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전기집 편찬위원회가 꾸려졌고, 성공적으로 전기집을 출간해 이날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됐다. 손의동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기집 편찬 모임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찬위원장을 맡은 손의동 명예교수는 이날 약대의 발전 기원과 역사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담아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고인과 생전 친분이 돈독했던 허인회 약대 명예교수, 흥흥만 약대 1회 동문회장이 행사에 참석해 고인과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허 명예교수는 70년간의 우정을 “바늘과 실 같았다”고 반추하며, 고인이 남긴 뜻인 ‘聳立中央 飛翔藥大’를 강조했다. ‘용립중앙 비상약대’는 ‘우뚝 선 중앙대학교, 날아오르는 중앙 약대’란 뜻을 담은 말로 고인이 생전 직접 제작해 우리 대학에 기증한 현판에 적혀있는 말이다.

박상규 총장은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고 했다. 손 교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손 교수님을 그리워하며 오늘의 자리를 만들게 됐다. 일평생 몸 바쳐 일궈내신 약학대학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하늘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대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ebook 주소 : <http://file.hanrimwon.com/ebook/SOHDONGHUN>

## 약학대학 서동철(23회) 명예교수, FAPA 부회장 선출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인 서동철 명예교수가 아시아약학연맹 (FAPA) 부회장에 선출됐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KLCC)에서 개막한 2022 FAPA총회에서 서동철 소장은 11월 8일 진행된 회장단 회의와 각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차기 부회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동철 소장은 일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 부회장과 함께 차기 집행부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장석구 부회장이 8년간 FAPA 집행부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새로 FAPA 집행부는 오는 12일 개최되는 FAPA 클로징 세레머니에서 선서 등 공식 행사를 통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회장에 선출된 서동철 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FAPA 집행부에 참여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약사의 역할과 직능을 제대로 알리는데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약학대학 황완균(26회) 교수, 한국생약학회 '제6회 가산광동학술대상' 수상



약학대학 황완균 교수가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이화여대 ECC에서 열린 '한국생약학회 제5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제6회 가산광동학술대상을 수상했다.

가산광동학술대상은 다년간 천연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생약과 한약 제제의 개발을 비롯한 생약·천연물 분야의 발전을 이룬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황 교수는 최근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인한 생물자원 주권

관련 생약자원의 보호와 대체 자원 개발에 힘써왔다. 식품 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국산 생약자원의 우수성과 차이점들을 발굴하고, 대체 자원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입 생약들의 무분별한 유통을 바로 잡는 데도 열심이다. 많은 표준 생약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유통 생약의 질서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표준생약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산업체·연구계·유통업체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평도 받고 있다.

## 약학대학 최형균 교수, 한국생약학회 환당천연약물학술상 수상



한국생약학회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한국생약학회 제 5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리 대학 최형균 약학대학 교수가 환당천연약물학술상을 받았다.

환당천연약물학술상은 다년간 한국

생약학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다수 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형균 교수는 천연물생명공학과 대사체학 기술을 이용해 생약학·천연물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 광명병원 '진정주 인공지능센터' 현판 제막식 거행



약학대학 90학번 동문인 진정주 진약사물 대표에게 헌정하는 '진정주 인공지능센터 현판 제막식'이 8월 23일 중앙대

학교광명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기부자인 진정주 대표와 부군인 박찬선 순복음안디옥교회 목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광명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식행사, 3층 인공지능센터에서의 현판 제막식 순서로 진행됐다. 진 대표가 기부한 발전기금 6억 5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 보고를 통해 그간 기탁한 후원금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중앙대광명병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됐음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진 대표는 지난해 중앙대광명병원 건립기금 6억원을 낸 데 이어 올해 중앙대광명병원 발전기금 5천만원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병원발전을 위해 후원했다.

## 약학대학 이민원(25회) 교수, 30년 근속상 수상



우리 대학의 '개교 106주년 기념식'이 11월 14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총장단, 동문회, 교직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대학의 106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약학대학 이민원 교수가 3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 약학대학 정선영 교수, 2022학년도 교육상 수상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강의력을 선보인 우리 대학 교원들에게 영예의 상징인 교육상이 주어졌다.

'2022학년도 교육상 표창식'이 10월 31일 201관(본관) 3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교육상은 최근 4개 학기 기준 가장 우수한 강의평가를 받은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교육상 수상자로는 총 21명의 교원이 선정됐으며, 약학대학의 경우 정선영 교수가 수상했다.



## 2022-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1,800,000	약학부	박지영
2	본동문회	1,800,000	약학부	이나연
3	본동문회	1,800,000	약학부	서지은
4	본동문회	1,800,000	약학부	이현지
5	본동문회	1,800,000	제약학	문해일
6	본동문회	1,500,000	약학부	이혜윤
7	본동문회	1,500,000	약학부	장지운
8	본동문회	1,500,000	약학	변경원
9	본동문회	1,500,000	약학	전세희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박지현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곽준혁
12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양지웅
13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강지원
14	청호 손동헌장학기금	1,000,000	약학	김성용
15	김명섭장학기금	1,000,000	제약학	정원식
16	여동문회	1,000,000	약학부	채선영
17	28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윤채연
18	28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최영범
19	26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서우재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20	26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이현진
21	32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신혁민
22	부산 동기회	500,000	약학	김지아
23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박규태
24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윤소연
25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오유나
26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천영혁
27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김동희
28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안근우
29	약품물리반	1,000,000	약학	맹우진
30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장정호
31	칼라무스	1,000,000	약학	조준호
32	칼라무스	1,000,000	약학	전세희
33	칼라무스	1,000,000	약학	이현진
34	칼라무스	1,000,000	제약학	이주영
35	칼라무스	500,000	약학	이유혜
36	칼라무스	500,000	제약학	남상현
<b>합 계</b>		<b>40,500,000</b>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1회계년도 회비내역 2022년 8월 ~ 2022년 12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3회	권석형, 강한구, 김수중,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신화섭, 윤명숙, 이승하, 조병훈, 최의한, 홍순욱	28회 구영삼, 김희식, 이영주, 이해룡
24회	이광섭, 이규삼, 함삼균	29회 김은진, 김형수
25회	이현수	30회 김광식, 최병원
26회	최민규, 한갑현	39회 이정근
27회	곽나운	41회 김소연, 최명수

이사회비		150,000원
2회	황재수	22회 강희윤, 김홍진, 손의동, 오황영, 이명옥, 이영욱 이준상, 이현희,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4회	이창우	23회 김진섭, 이계석, 정관영, 조종호
5회	김채윤, 조동준	24회 김승재, 임무호, 장규옥, 조종래
6회	박정배, 안인혁, 유상열, 유승균	25회 고성권, 김완기, 김희섭
7회	정재일	26회 김안식, 김정수B, 손영상
8회	박번일, 조의환, 한석원	27회 오순용, 오흥설, 현기원
9회	권혁구, 김영빈, 김홍래, 이근배	28회 김유근, 이병천
10회	김명민, 박호일, 변도문, 심수일, 유정사	29회 박웅삼, 손병로, 한일룡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창중, 박신규, 이철규, 황공용	30회 김성배(김해승), 김혜수, 최병태
12회	강옥희, 남기탁, 노덕재, 심재웅, 염윤기, 이관하 조택상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이춘노
13회	구연홍,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윤해선 이상길, 최창엽	32회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14회	구종모, 김동원, 양인승, 정도연, 조병화	33회 김영재, 이정수
15회	조찬휘	34회 김보원
16회	권영복, 송용만, 이은솔	35회 오창현
17회	선우영환, 장재인	36회 김진수, 이정석
18회	강응모, 김기명, 정명진, 조중형	37회 이정우, 장미경
19회	김경오, 윤건섭, 이경욱, 임종철	38회 최은영
20회	김홍진, 류화승, 박기배, 이극선, 이상일, 임경원 정찬현, 최석중	39회 권성렬, 민필기, 박성훈, 한은경
21회	김수배, 김중효, 백운경, 양주석	42회 정원석
		56회 이경민
		58회 김태수
		61회 정영섭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심재창(12회), 박광자(12회), 김기형(26회), 진정주(38회), 이지윤(46회)	

일반회비		30,000원	
4회	임호식	27회	김재식, 김창식, 문연숙, 양건모, 염승호, 유경무, 이무택 전명수
5회	이수웅	28회	김경완, 김형준, 이석원, 이혁빈, 장민수, 조승찬, 조효금
6회	박수서, 신의명, 이만형, 이원걸, 이태호, 이풍기, 임은순 전보연, 정진석, 진교성	29회	안성진, 이강현, 장귀연, 장우성
7회	김동완, 김홍배, 유종현, 윤정자, 이강형, 이상현, 이주학 정연홍, 최명자	30회	강성희, 고은숙, 도민숙, 박복자, 이경숙, 장부자, 조덕희 최돈웅, 최현희, 홍염미
8회	강윤규, 김진우, 박희철, 안덕기, 유재우, 이백천, 이태하 임영숙, 임진택, 장승자, 정수광, 정형숙, 조수현, 조현인 최영자, 허근희	31회	강미숙, 구상미, 김향수, 류문숙, 문희석, 박영란, 오대근 이동익, 이정희, 임기상, 장정인
9회	권태섭, 김학원, 노신희, 손광자, 이병호, 이해자, 이호식 정상모, 조병일, 최보혜, 한정희	32회	손수정, 신난원, 신은숙, 안승희, 임형미, 정현삼, 채영주
10회	김정남, 이원일, 이장열, 전광석	33회	김병호, 김정태, 박경록, 소정우, 유정순, 윤종배, 이보형 이영주, 이준복, 전병국
11회	구자역, 김기영,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송상부 안홍신, 양계창, 이명옥, 이석태, 장현소, 전창환, 조명숙 한창희	34회	김영미, 김용수, 노영화, 류지숙, 박경아, 박상권, 성선경 이선민, 이영은, 이 준, 정성아, 차은희
12회	김동욱, 김신우, 김일영, 김창섭, 민명임, 오형철, 옥정남 윤성노, 이수우, 이원주, 이정희, 임순성, 장광웅, 조병숙 주성근, 최창목, 한정수, 황순오	35회	김경실, 김성훈, 이종만, 허진욱
13회	김창식, 김태종, 김희겸, 손찬규, 왕문화, 우동진, 이규선 이우식, 최승기, 최호순	36회	김미향, 민희정, 박선영, 박종구, 박화신, 방극상, 양성운 유복진, 이명숙, 이태건, 차인혜
14회	권진혁, 김명수, 김영일, 김종열, 류효성, 상경숙, 안해봉 이병조, 이희영, 전봉선, 채성기, 최종택, 현수홍, 홍성철	37회	안의성, 차선옥, 한덕희
15회	김태영, 박인호, 송현숙, 황인영	38회	이강국, 이창은, 최세웅
16회	강명채, 권희문, 신규연, 윤영위, 최장순	39회	권연정, 김학순, 김해중, 방근철, 이용준, 전병선, 주훈정
17회	김대희, 김상집, 김재천, 신승백, 심상근, 양계순, 양희익 이동우, 전상훈, 정갑진	40회	김나연, 성종호
18회	김상각, 남애숙, 문형진, 박광숙, 양만기, 여운숙, 오영선 육득윤, 전춘이	41회	구영준, 박영진, 송우현, 오현미, 이미경, 이호섭, 최진희 최현호
19회	고문찬(고재무), 남윤수, 전현명, 채희태	42회	민명기, 엄충섭, 이창경
20회	김영식, 김종갑, 김평자, 방금숙, 이광영, 정동천	43회	김중호, 송세현
21회	김구영, 김진자, 노재하, 백기홍, 송주식, 송진용, 신길득 신종화, 안병현, 이만형, 이상일, 이상준, 장창만, 정재일 조 복, 최병철, 한찬수	44회	고정봉, 유경미
22회	강홍철, 이순명, 이은구, 장상대, 허 규	45회	고기현, 권영삼, 김경겸, 김지하, 김현경, 박성희, 송혜림 신미순, 이상영, 조동환, 조태원
23회	강호영, 김순현, 김재한, 나용태, 박영근, 박찬중, 서운출 송명숙, 오신환, 이원길, 이정대, 임창영, 정원국, 정중서 제갈희, 천경호, 최경선, 한병철, 한치완	46회	강병균, 배종구, 이동훈
24회	강창주, 김기환, 문숙희, 윤원철, 이동훈, 이형수	47회	최진희
25회	김선열, 김형욱, 손현우, 이동규, 이수영, 이승정, 이영제 임흥기, 장명열, 조경래, 조석현	48회	박수현, 백주민
26회	김유선, 김윤수, 김정수A, 박주돈, 반수호, 손영득, 신현동 양승훈, 오승주, 이순아, 이종량, 정기춘, 최종배	49회	김승준
		50회	박주현, 우종식
		51회	권세일, 박경태, 박병언, 이명원, 장진, 정주철
		52회	김혜연, 이보람
		53회	배재우, 이강은
		54회	권세원, 최강인
		55회	박재형, 임경선
		58회	한주희
		61회	양대형
		62회	김민지
		63회	박지원, 장윤희
		64회	이도연, 이재찬, 함석란
		65회	강재원, 김세민, 박기현, 박소연, 전차희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반대로 크게 쓸모없는 사람도 때를 만나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나 지금까지 12지간 열두번 지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이 순간을 집중하고 사랑하라는 현자의 말에 충실하련다.  
견잡을 수 없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재난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정년을 넘겨가며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집사람이 커리어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어떻게든 연장할 수 있으면 그리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세상의 '현명한' 가르침  
일지 모르지만, 그만하면 되었다.  
충분히 고생했고, 평생 한번도 실행에 옮긴 적 없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마움의 꽃다발을 전하고 싶다.

최병원(30회)  
편집위원

임인년의 바톤을 이어받아 계묘년의 검은 토끼가 경사진 언덕배기를 거침없이 오른다.  
모든 길흉화복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핑계대거나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하고 볼 일이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밀어주고 끌어주며 올해도 한바탕 신명나게 장을 펼쳐봅시다.



# www.caupharma.com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홈페이지 개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창립된 이래  
면면히 이어온 동문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선·후배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 도모를 통한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홈페이지 (<http://www.caupharma.com>)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문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늘 도움과 격려를 마다하지 않는  
동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문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접속 방법

01 홈페이지 접속  
주소안내

<http://www.caupharma.com>

02 모바일 기기  
QR코드 접속 방법



### 회원가입 방법

01 홈페이지 접속후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메뉴 선택



02 동문확인  
- 동문확인이 안될시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사무실 연락처 : 02-565-1700

동문 확인	
입학년도	<input type="text" value="입학년도 소제4자리"/>
성명	<input type="text" value="성명을 입력해주세요."/>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value="(010)23456789-1234"/>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회원가입이 안될시 동문회 사무실로(02-565-1700) 연락 바랍니다.

03 회원가입  
- 필수값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이름	<input type="text" value="이름"/> * -2000년, 2000년 00월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value="비밀번호 8-2000자 2차 입력 필수, 영문대문 필수"/>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password" value="비밀번호 확인"/>
*성명	<input type="text" value="성명"/>
*이메일	<input type="text" value="이메일"/>
*입학년도	<input type="text" value="입학년도"/>
*계수	<input type="text" value="계수"/>



# 프로의 선케어



## 맞아, 리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Hanmi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Hanmi



# 자연을 연구하는 글로벌기업

##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1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이메일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